



# 손안의 은행... 10초면 송금 끝!

11일 서비스가 시작된 '뱅크월렛카카오' 앱을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았는데 몇 분 후 카카오톡에 지인으로부터 이런 메시지가 들어왔다.

"뱅크머니 1000원을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한마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받은 카톡 메시지 상에서 '뱅크로 연결'을 터치했더니 바로 뱅크월렛카카오 앱으로 연결됐고 '지갑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하니 앱이 열렸다. 첫 화면의 사용자환경(UI)이 매우 단순해 내용이 한눈에 들어왔다. 은행 계좌에서 충전해놓은 금액 10만원이 표시돼 있고, '보내기', '충전하기', '내 계좌로' 등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나열돼 있었다. 아래에 있는 동전 모양의 그림을 선택했더니 1000원이 들어온 것이 확인됐다.

'받기'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충전된 금액이 충전 10만원에서 10만1천원으로 늘어났다. 스마트폰으로 돈을 송금 받은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지인에게 고맙기도 해서 이번엔 돈을 보내보기로 했다.

첫 화면에서 '보내기'를 손으로 터치하자 화면이 바로 카카오톡 친구 목록으로 넘

## 뱅크월렛 카카오톡으로 돈 보내기

계좌에 최대 50만원까지 충전 가능 하루 송금 한도 10만원

제휴 은행간 수수료 무료, 공인인증서·보안카드 없어도 OK

어갔다. 지인의 이름을 선택하고 500원을 입력한 뒤 [보내면서 한마디] 부분에 "500원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메시지를 적고 '뱅크머니 PIN'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했더니 송금절차가 완료됐다.

뱅크월렛카카오는 은행 계좌에서 최대 50만원을 충전해놓고 하루 10만원까지 지인들에게 보낼 수 있는 송금서비스. 제휴된 은행들은 당분간 송금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미국에서 이와 같은 소액송금서비스인 '벤모(Venmo)'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왜 그런지를 뱅크월렛카카오를 써보니 실감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간편하고 빠르다. 메시지를 입력하는 시간을 제

외하면 10초 안에 모든 송금절차가 끝났다. 국내에서 이 서비스가 각종 회비나 경조사비 모금, 음식값 나누어내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이 돈을 주고받으면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만 14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고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돈을 받기만 가능하고 보내기 기능은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우려가 되는 보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 눈에 띈다.

앱을 열 때 보안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구동되는 것이 확인되고 '지갑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앱을 이용할 수 있다. 돈을 보내고 받으려면 별도의 비밀번호를 넣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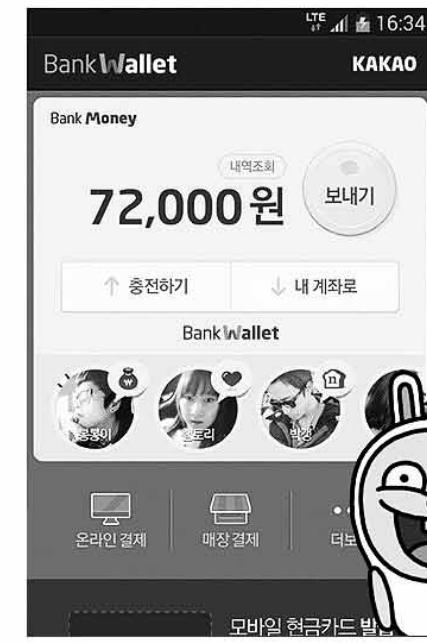
한다. 앱을 열어놓고 10분가량이 지나니 자동으로 앱이 종료됐다. 비밀번호만 수시로 교체하면 스마트폰 도난이나 분실에도 돈이 빠져나가는 불상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카카오측은 "이중 삼중으로 보안 장치를 마련했다. 일반 인터넷뱅킹보다도 안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뱅크월렛카카오는 모바일 현금카드를 최대 25장까지 등록해 ATM기에서 돈을 보내고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NFC형 결제는 SK텔레콤과 KT가입 스마트폰에서는 가능하지만 LG유플러스 통신망에서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간편결제 '페이나우' 서비스를 하는 LG유플러스가 경쟁 관계인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를 지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업계에서 나온다.

그러나 LG유플러스측은 단순히 시스템 연동이 늦어지는 문제로 연내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뱅크월렛카카오 NFC결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립뉴스



## 금주의 추천앱

시간, 공간, 재능, 물건, 정보 등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이웃과 공동체 의식도 형성하고, 환경에도 이로운 활동인 '공유'활동. 지난 시간에 이어 가치있는 '공유' 경제 앱을 소개한다.

도시광부/제작:KongJongBok\_Rurukorea.com/안드로이드  
버리긴 아깝고 쌓아두자니 자리만 차지하는 옷을 공유하자. 도시광부를 이용해 집에 쌓여만 가는 옷들을 캐쉬로 바꾸어 현금교환, 기프티 몰, 무료옷 공유 쇼핑등으로 다양하게 사용가능하다.



코자자/제작:KOZAZA/ 안드로이드폰  
서울 북촌한옥마을에서 전주 한옥마을에 이르는 전국의 모든 한옥을 여행자에게 공유하는 여행, 숙박 플랫폼이다. 사용자는 자신의 집 빈방을 공유하고 여행객은 일반 숙소와는 다른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코코팜스/제작:코코팜스/http://www.cocofarms.co.kr  
유휴농지를 가진 사람과 농사를 짓고 싶지만 땅이 없는 사람을 서로 연결해 준다. 땅 크기, 형태, 경작 지원 가능 여부 등을 알 수 있고 유휴지의 상태와 소유자 사진도 함께 볼 수 있어 신뢰도를 높였다.

DESIGN ZOOOS 제공:디자인주스 (대표 정우주 tiger@designzoos.com)

## 스마트폰, 성격대로 고르자

러브 '에기'·악동 '우키'·소심 '소울'·식탐 '요요'...LG, 고객 맞춤형 '아카' 출시

LG전자가 나만의 개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고객을 타겟으로 한 스마트폰 '아카'(AKA)를 12일 출시했다.

아카는 4가지 색상별로 서로 다른 페르소나(성격)를 나타낸다. 늘 사랑에 빠지는 '에기(Eggy, 옐로우)'와 늘 욕하는 악동

'우키(Wooky, 화이트)', 음악을 좋아하는 소심이 '소울(Soul, 블랙)', 다이어트 하는 식탐이 '요요(YoYo, 핑크)' 등 총 4가지로 출시된다. 4가지 페르소나는 각각 다른 '움직이는 눈동자' 형상과 컬러, 사용자환경(UX), 효과음을 제공한다.

다른 페르소나로 호환하길 원하는 사용자를 위해 이런 기능을 지원하는 전후면 커버 패키지도 별도로 판매한다.

이 패키지는 세계 최초로 전면 슬라이드 커버 '마스크'(Mask)를 적용해 화면 상단의 움직이는 눈동자 형상을 구현했다.

마치 사람이 마스크를 쓸 때 눈만 보이는 것과 같은 형상이라고 LG전자는 설명했다.

마스크는 폰의 전면 디스플레이와 후면

배터리커버 모두 위아래 방향으로 탈부착 가능하다.

아카는 고객 개성에 초점을 맞춰 사용자가 직접 스마트폰을 꾸밀 수 있게 'DIY' 콘텐츠를 함께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4가지 페르소나를 피규어로 제작한 아토틀이가 제공된다. 아토틀이는 액세서리 역할과 함께 아카의 카메라 특화 기능인 '스냅샷'(Snapshoot)에 활용할 수도 있다.

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장은 "아카는 사용자가 자신만의 개성을 투영할 수 있도록 만든 신개념 스마트폰"이라며 "제품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차별화된 컨셉트로 새로운 스마트폰 시장 수요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왼쪽부터 에기, 우키, 소울, 요요.

# 월산동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반지하-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35평, 주택(방3 화2 거1)  
4층-35평, 주택(방3 화2 거1)

■ 시세 및 감정가 - 7억2천만원

■ 일시불 매매가 - 6억2천만원

(용 3억5000만 가, 보 2억에 월 270만 가)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도시가스, 전체 올수리

■ 우리중개사 H.P 010-8589-5500



■ 29평 -12층  
주거겸 사무실  
양동 하천 방향, 원룸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수리  
시 세-1억원 정도  
매매가-7500만원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

## 오피스텔 매매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77평형-20층  
사무실 전용  
창가코너, 최상층, 전망좋은  
사무실 용도로 전체 올수리  
룸 2개 사무실 1개  
시 세-3억7000만원 정도  
매매가-2억7000만원

문의 HP. 010-3180-8900

## 특수경매

- ▶ 배우면서 투자가능
- ▶ 주1회 3개월 완성
- ▶ 2~3명 개인지도
- ▶ 경매사 자격증 발급
- ▶ 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쥬오천경매  
H.010-3605-5000